

완전성(Vollständigkeit)과 불확정성(Vagheit)

조준구(성균관대)

1. 들어가는 말

완전성 Vollständigkeit이라는 개념의 대한 논쟁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향에서 시도되어질 수 있다. 한 방향은 완전성이 보편적 실재성 universale Wirklichkeit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다. 구체적 또는 이론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되지 못하더라도 선형적으로 보아 완전성의 실체는 실재적으로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완전성의 유무에 대한 이론적 또는 구체적 입증은 불필요한 것이며 단지 무엇이 절대성을 지닌 완전한 것이며 무엇이 불완전한 것인가 하는 개념적 이론전개가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을 언어학에 적용시켜 본다면, 문장 Satz은 그 보편적 개념의 정의가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문장은 경험적 분석 이전에 실재적으로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 현대 언어학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완전한 문장은 langue의 차원에서만 존재할 수 있으며 parole로써의 현상에서는 그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기에 모든 구체적 표현의 유형은 완전한 langue를 기반으로 한 것이며 나아가 다양한 변형(parole-Variante)로 나타나는 것이다. 다른 하나의 방향은 절대적 완전성의 존재를 부인하는 입장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즉 완전성이라는 개념은 대상의 분석 내지는 이론전개의 구체적 방법론을 통해서만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서 parole을 통한 구체적 모델설정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완전성의 예가 상대적 관점에서 제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통적 문법이론의 관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완전한 문장은 구체적으로 주어+술어(동사)-모델로 구성되어야 한다. 주어와 술어는 상대적으로 문법의 구조적 완전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러한 구조가 항상 의미적 완전성도 동반한다고 보는 것은 아니다. 의미적 완전성에 대한 연구는 현대언어학에서 개별적 방법론에 따라 부분적으로는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으나 보편적인 정의 또는 본질적인 정의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물게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¹⁾ 또 다른 예로 발렌쯔이론은 전통적 문법론에서 벗어나 그 중심축을 주어와 술어의 등위관계에서 동사우위로 옮겼지만 그 역시 보족어 Ergänzung (obligatorisch und fakultativ)과 자유성분 Angabe를 통한 문법적 구조적 종속성 strukturelle Abhängigkeit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따라서 핵심구성요소(예: 동사)의 특성과 기능에 근거한 문장의 모델설정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이다. 즉 동사와 더불어 보족어 Ergänzung 또는 자유성분 Angabe를 갖춘 문장은 이론전개를 위한 상대적 완전성으로 전제되는 것이지 그 것이 의미성을 포함한 절대적 완전성이라고 간주되지는 않는다. 완전성에 대한 어떠한 입장을 취하던 주목할만한 점은 양 관점이 모두 문장이라는 개념을 그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언어이론에 있어 완전성에 대한 논쟁과 문장개념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2. 문장에 대한 표상 Satzvorstellung과 완전성 Vollständigkeit

문장의 정의에 대한 새로운 시도는 본 논문의 관심사가 아니다. 기존의 언어학이론들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제기 내지는 통용되고 있는 문장의 개념은 두 가지 관점에서 파악될 수 있다. 즉 문장을 하나의 복합체 Komplexform로 보느냐 아니면 하나의 단위 Einheit로 보느냐 하는 이분법적 관점이다.

복합체는 부분들 Teile로 이루어진 종합체 Ganze로 보는 입장이다.²⁾ 이러한 관점에서는 완전한 문장의 예로 하부구성요소들로 이루어진 구체적 모델설정(z. B. Grundstruktur, Basisstruktur oder Ausgangsstruktur)이 필수적이다. 여기서는 복합체를 형성하는 하부구성요소 Subelement들의 개별적 특성(문법적 그리고 의미적 특성)과 더불어 문장 내에서의 기능이 복

1) 의미론적 완결성에 대한 본질적 논쟁은 현대언어학에서 역시 묵시적으로 포기 내지는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2) 이러한 관점에서는 '전체문장'과 '부분문장 (또는 축소된 문장)'이라는 이분법적 이론 전개가 주관심사로 등장한다. 'ersparte Konstruktion' 또는 'elliptische Form'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Vgl. B. L. Müller 1985, S. 25 이하.

합체의 성격을 좌우한다고 본다. 따라서 일반적 분석방법론으로 대체원리 Ersatzprinzip (Möglichkeit des Ersatzes eines bestimmten von mehreren Satzteile)가 기준으로 작용한다. 더불어 하부구성요소들 간의 지배관계 또는 상호보완관계가 분석의 기준인 것이다. 이러한 하부구성요소는 단어일 수도 있고 문장구성성분 Satzteil일 수도 있다. 따라서 완전성유무에 대한 판단은 하부구성요소가 제대로 대체되어 있는가(qualitativ: korrekt oder nicht korrekt) 또는 모두 갖추어져 있는가(quantitativ) 하는 점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발렌찌이론에 따르면 동사가 하부구성요소들 사이에서 핵심적 지배요소로 작용하므로 동사와 다른 구성요소들간의 지배관계와 종속관계 다시 말해서 종속성의 정도 (obligatorisch, fakultativ, frei hinzufüßbar)가 문장구성요건 즉 완전성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문장은 동사라는 핵심하부구성요소 Kern-Subelement와 그 외의 종속하부구성요소 abhängige Subelement로 구성된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는 문법적 완전성은 동사의 Valenz 즉 지배에 근거하므로 하부구성요소중 하나인 자유성분 freie Angabe의 나타남 유무는 완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의된다.

1) Es handelt sich um ...

위의 예문에서 순수한 문법적 관점에서는 재귀대명사 sich는 동사 handeln의 4격목적어, um전치사구는 전치사목적어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장에서는 handeln이 지배동사인지는 아니면 sich handeln이 지배동사구인지 그 기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이론적 설명이 눈에 띄지 않고 있다. 전자의 경우라면 um이하의 전치사구는 필수적 보족어 obligatorische Ergänzung인지 아니면 선택적 보족어 fakultative Ergänzung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만일 선택적 구성요소로 정의된다면 생략되어도 단순하게 비문법적 나아가 불완전한 구조라고 정의하기는 어려워야 한다. 그러나 실제 사용에 있어서 um전치사구가 생략된 구조를 완전구조로 본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만일 후자의 경우처럼 지배동사구를 하나의 핵심하부구성요소로 보아 um전치사구는 필수적 구성요소로 정의되어야 한다면

발렌쯔의 지배성은 동사라는 품사의 특성에 의해 일반적으로 정의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동사 또는 동사군(또는 문장구성성분)³⁾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즉 각 문장유형의 경우에 따라 상이하게 정의되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단지 하부구성요소의 유무와 일반적 특성에 근거하여 완전성 여부를 일반적으로 정의한다는 것에 수궁하기 어렵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 또 한 예를 들 수 있다.

2) Es geht mir gut.

위의 예문에서 *mir*를 자동사인 *gehen*의 3격목적어로 간주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3격목적어가 아니라면 *mir*를 *für mich* 또는 *bei mir* 같은 의미(*finale Bedeutung*)를 나타내는 전치사구와 유사한 기능으로 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다. 만일 후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은 자유성분 *freie Angabe*인가 아니면 보족어 *Ergänzung*인가? 자유성분 *freie Angabe*라면 *mir*가 생략되어도 생략된 문장은 이론적으로는 완전구조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mir*와 같은 3격형이 생략된 구조를 완전구조로 본다는 것 역시 수궁하기는 어렵다. 또한 형용사 *gut*은 보어의 역할을 하는 자유성분 *freie Angabe*로 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 경우 형용사 *gut*이 생략된 문장을 역시 완전구조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나아가 예문 1)과 2)에서는 굳이 발렌쯔이론을 따른다면 동사의 단독지배가 아닌 주어+동사 즉 *es+Verb(Prädikakt)*라는 일종의 어군의 지배로 보아야 한다는 또 다른 이론이 제시될 수도 있다. 발렌쯔이론에 대한 비판은 본 논문의 관심사는 아니다. 다만 소위 하부종속요소의 특성과 기능의 분석에만 의존하는 한 완전성에 대한 개념정의는 여러 면에서 불충분한 결과에 다다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분석적 방법론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부분들 즉 각 하부구성요소들의 일반적 특성과 기능이 명확하게 전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명확

3) 이와 관련하여 *sich handeln*과 같은 재귀동사구조는 수동형의 일종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될 수 있다.

함에 대한 정의는 기실 이론적으로도 더불어 방법론적으로도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장을 복합체로 보는 또 하나의 예는 변형생성문법이론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변형생성문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완전성의 정의에 대한 본질적이고 직접적인 시도는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간접적으로 변형가능성(Transformationsmöglichkeiten⁴⁾)에 근거한 소위 Tilgungsprozeß (Gapping 또는 Gapping-Probe를 통하여)에 의거하여 실제문장을 분석함으로써 해당문장에 대한 완전성 여부를 정의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적 분석에서는 역시 구체적 모델설정을 출발점으로 하여 구성된 문장의 각 하부구성요소를 삭제해 봄으로써 완전성유무를 정의하려고 시도한다.

3) Er spielt Klavier und sie spielt Flöte.

3a) Er spielt Klavier und sie (spielt) Flöte.

3b) *Er spielt Klavier und (sie) spielt Flöte.

3c) *Er spielt Klavier und sie spielt (Flöte).

위의 예문들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Gapping에 있어서는 반복된 하위구성요소의 부분삭제만이 가능하며 예문 3a)에서와 같이 반복된 부분이 삭제된 문장도 완전한 문장으로 정의된다. 여기서 삭제될 수 있는 하위구성요소는 선택적 보족어 fakultativer Element로 분류된다. 하위구성요소가 선택적 요소인지 아니면 필수적 요소인지에 대한 정의는 발렌츠이론 처럼 동사 같은 핵심구성요소의 본질적 기능 또는 특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된 개별적 문장에서 부분의 삭제 Tilgung를 시도해 봄으로써 그 결과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은 전적으로 parole의 차원에서 시도될 수 있으며 완전성에 대한 정의는 오로지 개별문장을 이루는 하부구성요소의 기능에 달려 있는 것이다.

4) Vgl. Heidolph(1981): "Abwandlung".

- 4) Sie schlägt ihn.
 4a) Er wird von ihr geschlagen
 4b) Er wird (von ihr) geschlagen.
 4c) *(Er) wird von ihr geschlagen.
 4d) *Er (wird) von ihr geschlagen.
 4e) *Er wird von ihr (geschlagen)

위의 예문들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변형생성문법에서 소위 심층구조상⁵⁾ 문장 4)와 4a)는 동일한 것으로 정의된다. 하나의 표층구조문장 4b)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구성요소인 전치사구 von ihr는 4)의 필수적 요소(주어)에서 선택적 요소로 전환되어 삭제 가능해진다. 따라서 문장 4b)는 문법적으로 완전한 문장으로 정의될 수 있다고 본다. 예문분석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문장의 완전성은 한 문장을 이루는 구성요소들의 해당문장에서의 기능과 특성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에 따르면 어차피 완전성에 대한 본질적 내지는 선험적 정의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문장의 완전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표현될 수 있는 모든 문장을 개별적으로 분석해 보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변형생성문법은 심층구조와 표층구조라는 이원론적 이론을 그 기반으로 하고 있다. 위의 예에서 살펴본 것처럼 완전성이 전적으로 문장 각각의 개별적 표층구조에 따라 각기 상이하게 규정 내지는 정의되어야 한다면 소위 심층구조는 거기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에 다다르게 된다. 심층구조상 동일한 두 개의 표층구조문장이 각기 다른 완전성을 나타내고 있다면 심층구조 자체도 두 개의 상이한 완전성을 내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가 하는 풀기 어려운 질문에 봉착하게 된다. 아니면 심층구조 내의 완전성은 표층구조의 완전성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는 정의에 근거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심층구조라는 용어 자체가 필자가 이해하는 바로는 무언가 선험적 내지는 형이상학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표층구조는 심층구조에 의하여 또는 심층구조의 지배하에서 구

5) 필자는 개인적으로 아직도 변형생성문법에서 내세우는 소위 '심층구조(Tiefenstruktur)'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체적 표현으로 나타난다고 이해되어진다면 심층구조의 완전성과 표층구조의 완전성이 서로 상이하다는 결론이 무언가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문장을 복합체가 아닌 하나의 단위 Einheit로 보는 관점 즉 독립적 단위(최소단위)⁶⁾로 보는 시각에서는 하부구성요소의 개별적 특성이나 그 기능보다는 소위 문장의 비발화 Illokution이 결정적 기준으로 작용한다.⁷⁾ B. L. Müller가 제시한 것처럼 한 문장은 하나의 비발화 Illokution을 나타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⁸⁾ 여기서는 구성요소들 상호간의 지배관계 등은 가능한 한 논점에서 배제된다. 예를 들어 문장 안에서의 동사의 존재유무는 문장의 완전성을 정의하기 위한 절대적 기준이 되지 못하며 또한 형태적 구조적 완전성 역시 문장개념의 절대적 기준으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⁹⁾ 필자가 이해하기로는 비발화 Illokution의 개념은 의사전달과 수용(Kommunikation)의 성립유무를 분석하기 위한 개념으로 도입된 것으로 보아야 하기에 절대적 개념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본모형(Lokution)에

6) Vgl. "kleinste Einheit", (H. Glinz 1970, S. 9)

7) Illokution을 기준으로 하는 관점은 필자의 견해로는 기능분석(Funktionsanalyse)에 의거하여 문장의 정의와 완전성에 대한 정의를 시도하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보여진다 - Vgl. H. Strohner/G. Rickheit 1985, S. 251, "Die Vollständigkeit ist dann gegeben, wenn mittels der Funktionsanalyse festgestellt wird, daß das Subsystem seine ihm von übergeordneten Verhaltenssystem zugewiesene Funktion erfüllt." 이와는 상대적으로 복합체로 보는 관점은 구성요소(Komponenten)로 이루어진 구조분석(Strukturanalyse)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 Vgl. ebd., "Die Vollständigkeit des Ereignisses ist dann gegeben, wenn mittels der Strukturanalyse festgestellt wird, daß alle Komponenten, die für das Ereignis konstitutiv sind, vorhanden sind."

8) Vgl. B. L. Müller 1985, S. 88-154.

9) Vgl. B. L. Müller 1985, S. 28: 'Die Definition muss allen definitionstheoretischen Anforderungen genügen ... (Eine solche Anweisung ist in der Theorie wohl tautologosch, aber angesichts der bisherigen Praxis durchaus nicht überflüssig.)'

ebd. "Sie soll ihr Definiens abgrenzen gegen die Begriffe 'Morphem/Wort/Wortgruppe', 'Text' und 'Äusserung'. Nur so ist die Aussagekraft des Satzbegriffs gewährleistet."

서 출발하는 각각의 실제적 문장유형을 실제상황에 적용시켜 봄으로써 의사전달 가능성을 확인해야 하는 응용개념으로 파악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Müller는 Illokution이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langue차원의 문장개념을 정의할 수 있다고 간접적으로 표명하고 있지만 비발화 Illokution은 체계개념(System-Begriff)으로 이해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예를 들어,

- 5) Er kann nicht arbeiten, denn er ist sehr müde.
6) Er kann nicht arbeiten. Denn er ist sehr müde.

단위 Einheit의 관점으로 보면 5)의 문장은 문법적으로도 또한 비발화 Illokution의 시각에서도 한 문장으로 볼 수 있다. 6)의 예는 순수하게 문법적으로는 두 문장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비발화 Illokution의 시각에서는 의사소통 Kommunikation (특히 구어에 있어서)의 상황에 따라 하나의 비발화 Illokution 또는 두 개의 개별적 비발화 Illokution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은 해석(Interpretation)의 예를 들어 화자의 심리적 여건이나 의도와 같은 언어외적 요소에 의한 해석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언어체계내의 개념으로 파악되기에는 쉽게 수궁이 가지 않는다. B. L. Müller와 같이 비발화 Illokution에 의거하여 문장에 대한 표상(Satzvorstellung) 또는 문장의 정의를 논하고자 하는 관점은 “문장은 무엇인가? (Was ist Satz?)”라는 물음에 답하기 위한 것이며 “문장의 완전성은 무엇인가? (Was ist Vollständigkeit des Satzes?)”라는 물음에는 직접적인 답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3. 완전성 Vollständigkeit과 불확정성 Vagheit

완전성 Vollständigkeit에 대한 논의에 접근하기 위하여 이론적 방법론으로 불확정성 Vagheit¹⁰⁾의 개념을 도입하고자 한다. 불확정성의 개념은 인

10) 불확정성을 Vagheit라는 용어 대신에 vage Vorstellung이라고 표현해도 별 무

문학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온 개념이다. 또한 일반적으로는 인식론의 중요한 테제로 다루어져 온 개념이다. 여기서는 D. Wolf(1991)에 의해 제기된 언어학에서의 ‘불확정성’을 원용하고자 한다. E. Schneider(1988)는 불확정성 대신에 ‘선명치 못함 Unschärfe’이라는 개념을 단어의 의미에 적용시켜 ‘의미의 다양성(Variabilität)’ 그리고 ‘의미의 복합성(Polysemie)’과 구분하려고 한다. 따라서 ‘선명치 못함’이라는 개념은 그에 의하면 모호성 Ambiguität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의미의 범주는 선명하게 적용시킬 수 없다는 범주론(kategorische Bedeutung eines Wortes) 즉 의미의 유연성과 연관시킨 개념으로 이해되어진다. 따라서 한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범주론적 의미의 대표적 예를 나타내거나 부분적 의미를 예로써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의 이론은 단지 단어의 의미론에 국한되고 있다. 그에 반하여 D. Wolf는 의미론을 언어현상 전반에 적용시키려 시도한다. 그의 논점에 따르면 불확정성은 의미론과 실용론의 관점에 기인한다.¹¹⁾ 즉 의미해석의 다양한 가능성과 범주론적 불분명성(또는 선명치 못함)¹²⁾ 그리고 이해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식을 통하여 불확실성은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언어의 시간적 전개과정 그리고 환경적 여건의 상이성 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의미의 변화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언어사용자가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확연하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잠정적 과정기간 Vorläufigkeit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이 기간 동안 변화를 위한 일종의 유동적 잠재성(Vgl. S. 113 latente “Dynamik des Deutungshandelns”)으로 언어체계 내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리는 없다고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vage Vorstellung이 예를 들어 언어사용자 단지 개인의 주관적 표상만을 의미한다고 생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 언어공동체의) 객관적 표상의 개념으로써 Vagheit로 표기하고자 한다.

11) Vgl. D. Wolf 1981 S. 106-107, “Durch Interpretabilität und Variabilität, speziell auch durch Graduierbarkeit der Deutung von Sprachzeichen wird Kommunikabilität, Vermittelbarkeit und Verstehbarkeit, Anpaßbarkeit und Kreativität und Ökonomie oder Optimierbarkeit der Deutung ermöglicht.”

12) 이 역시 모호성 또는 다의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의미적 범주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되어진다.

그러나 여기서 첫째로 이러한 불확정성의 원인을 Wolf는 일방적으로 언어외적 요인에서만 찾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에 의하면 언어체계 자체는 불확정성의 주체가 아니라 시간의 움직임, 공간적 환경의 바뀔, 사회적 여건의 변화 등 언어외적 요소들에 의하여 변화되는 피동적 의사전달수단이라는 관점을 간접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그의 관점을 따르다면 언어체계 내에서의 완전성에 대한 논쟁은 거의 무의미한 것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앞에서 완전성의 예로 제시되는 모델설정은 그 출발점부터 모순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이다. 여기에서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만일 언어체계 자체가 불완전성의 유무와 관련 없는 단지 수단에 불과하다면, 의사전달과정에 있어 언어적 표현 자체(예: 문장의 구조)로 인한 오해나 불분명한 이해는 일어날 수 없으며 그러한 불분명한 이해는 오로지 언어행위담당자 상호간의 심리적 상이성이나 언어행위의 주변환경조건과 같은 언어외적 요소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언어의 표현에 있어 어순, 어미변화 등과 같은 문법체계 등이 올바르게 사용되었는가 하는 기준적 척도는 무의미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여기서 불확정성의 일방적 언어외적요인설은 이론적 자기모순에 다다르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다.

둘째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은 E. Schneider와 D. Wolf 두 사람 모두 불확정성의 개념을 의미론적 개념에 국한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언어는 의미와 구조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언어의 불확정성은 의미론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구조자체 즉 구조를 형성하는 구성요소들 사이에도 내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¹³⁾ 예를 들어 품사 또는 문장성분들과 같은 문장구성요소들의 문법적 기능이나 구조적 역할은 확정적이고 더불어 그에 따른 문장유형이 항상 일정하고 고정적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문장의 유형은 실제적 사용에 있어 소위 표준문법의 틀을 벗어나서 다양하게 심지어는 문법적 오류와 더불어 빈번히 사용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

13) 언어 구조에서는 어느 부분도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상당수 이론가들은 소위 'Wortfeldtheorie'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 이론은 주로 Semiotik에 의존하고 있는 반면 구성요소들 간의 구조적 기능성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상세하게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한 실제적 표현의 구조가 문법체계에 맞는 것인가 하는 규준/기준척도 Norm의 문제는 관습의 관점에서 파악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7) Ich zeige hier ganz deutlich, daß ich in einem Amendement der Beurtheilung des Landtages frei lasse, ... seinen ständigen Rechten im vollsten Umfange Gebrauch zu machen, ... (Koenigliche Berlinische Privilegierte Zeitung 1735. 10. 13)

위의 예문에서와 같이 18세기에는 zu+Infinit로 이루어진 부정사구가 본동사 lassen의 목적어로 기능하고 있음을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 현대독일어 문법에서는 이러한 구조는 낫선 또는 비문법적인 구조로 파악된다. 18세기로부터 현대의 독어체계로 이르는 과정에서 이러한 구조는 확정성에서 불확정성으로 이르는 과정 나아가 불확정에서 다시 현대문법의 확정성으로 이르는 과정을 거쳤음을 추론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문법적으로 안정화된(stabilisiert/festgelegt) 구조에서 잠정적으로(vorläufig/im Prozeß) 불확정적인 구조의 과정을 거쳐 나아가 비문법적인 구조로 정의되어 다시 안정화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8) Die Regierungsparteien hätten die freien Berufe lediglich darum geopfert, um aus Rücksicht auf die Sozialdemokratie die Entscheidung über den Verwaltungskostenbeitrag zu umgehen. (Vossische Zeitung 1930.03.26)

위의 예문에서는 um zu Infinitiv부정사구의 연결사로써 darum이 주문장에 등장하고 있다. 현대독일어문법에서는 연결사 dafür와 zu Infinitiv부정사구가 콤마를 사이에 두고 연결되거나 또는 연결사 없이 um zu Infinitiv만 소위 자유성분 freie Angabe로 등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위의 예문과 같이 현대독일어문법에서 연결사 darum의 사용을 비문법적이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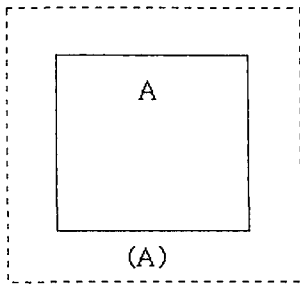
확정적으로 규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러한 사용은 최근의 독일어 표현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상당히 드물고 앞으로 가까운 기간 안에 비문법적 사용으로 규정되어질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대부분의 문법이론가들은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확정성을 향한 구조적 불확정성의 한 예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darum + um zu Infinitiv*, *dafür + zu Infinitiv*, *um zu Infinitiv* 세 가지 구조사이 에는 그 사용에 있어 정태적 언어체계의 시각에서는 기준이 되는 척도의 불확정성, 통시적 시각에서는 잠정적 과정이라는 불확정성이 내재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예들은 의미론이 아닌 언어구조에 있어 불확정성과 유동성의 실제적인 예로 제시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로 제기될 수 있는 의문점은 불확정성의 개념이 언어공동체의 언어 사용능력 또는 체계에 대한 전반적 적용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 또는 언어사용자 개개인의 개별적 언어구사능력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양자를 모두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공시적 관점에서 본 특정언어상태의 공동체적 언어구사능력과 언어사용자 개인의 언어구사능력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을 수학적 포함관계로 나타낸다면 일반적으로는 개인의 언어구사능력은 충분조건, 공동체의 언어구사능력은 필요조건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다.

먼저 공동체의 언어구사능력에 있어 이 것을 정태적 언어체계로 본다면, 언어체계 내에는 확정성과 불확정성이 공존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첫째 단어와 같은 개별어휘의 의미는 단지 사전적 의미와 같이 고정된 의미로 확정되어 있기보다는 언어공동체내에 하나의 의미적 범주 *semantische Kategorie*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설정된 범주는 고정된 의미라고 하기보다는 가변성을 지닌 것으로 이해되어진다. 이러한 가변성은 공시적 관점에서는 언어상태 내에서 유동성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통시적 관점에서는 언어변화의 잠재성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개인의 언어구사능력은 전반적으로는 공동체의 언어구사능력 즉 언어체계의 영향 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개인에 따라 상이한 면을 소유하고 있으며, 또한 때로는 체계가 허용하는 기준 *Norm*에서 벗어나는 언어구사를 나타내기도 한다. 개인이 공동체의 언어구사능력과 개인의 구사능력사이의 차이점을 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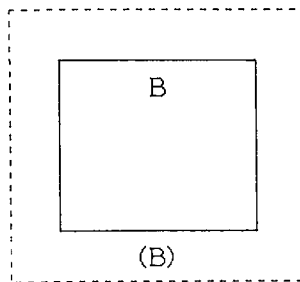
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제 삼자의 관점으로는 하나의 불확정성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개인이 이러한 상이성을 스스로 확연히 인식할 수 있다면 그는 이러한 상이성을 버리고 공동체의 언어구사능력에 의한 표현에 접근하려고 노력하려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도표1 - 언어공동체



A: 확정성
 (A): 불확정성
 $A + (A) = \text{언어체계}$

도표2 - 개인



B: 확정성
 (B): 불확정성
 $B + (B) = \text{개인의 언어구사능력}$

도표에서 실선부분과 점선부분이 겹치는 부분을 확정성이라 규정지을 수 있다면, 겹치지 않는 점선 부분은 불확정성이라 규정지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확정성은 절대적 고정적 확정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정성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이해되어 진다.

도표3 - 공동체에 대한 개인의 Wirkung과 Gegenwirku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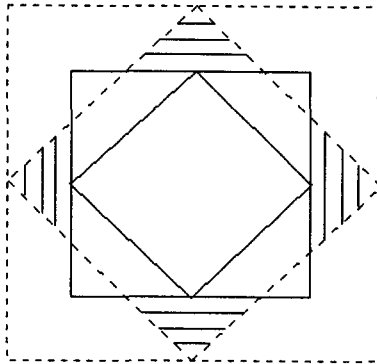


도표3 = 도표1 + 도표2

도표3의 빗금 친 부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불확정성으로 인한 개인의 실제적 언어구사는 때로는 공동체의 언어구사능력에 대하여 무의식적인 시험 Probe/aktive Wirkung으로 작용하며 공동체의 언어구사능력은 그에 대하여 반작용 Gegenwirkung¹⁴⁾으로 작용하게 된다.¹⁵⁾ 이 것이 실제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불러일으킬지는 공동체언어구사능력이 지니고 있는 불확정성의 정도에 달려 있는 것이다. 만일 공동체의 언어체계 내에 불확정성이 존재하고 있지 않고 오로지 확정성만 존재하고 있다면 개인의 시험에 대하여 거의 반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인언어구사능력의 불확정성 역시 공시적으로는 유동성, 통시적으로는 언어변화를 위한 잠재성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확정성은 언어체계에 있어 불확정성에 대한 상대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완전성은 이러한 확정성과 불확정성이라는 두 상태를 포괄한 개념으로

14) 이러한 시험은 일반적으로는 개인이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또는 의도하지 않는 시험을 의미한다.

15) 이러한 면을 언어사용자 개인과 개인 사이의 작용 즉 intersubjektiv라는 관례로 설정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언어사용자 개인과 그에 대하여 상대적인 언어공동체로 설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파악되어야 한다. 불확정성이 실제로는 유동적이기에 그에 따라 상대적으로 완전성도 고정된 것이 체계가 아님을 인식할 수 있다. 다만 언어사용자 스스로는 그가 속하는 소위 동시대 즉 언어상태 속에서 완전성 자체도 유동적임을 감지하기 어려울 뿐이다.

4. 불확정성 Vagheit, 완전성 Vollständigkeit과 통시성 Diachronie

앞의 장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불확정성은 의미론, 언어구조 형태, 언어사용자(공동체와 개인)라는 세 가지 관점에서 정의 될 수 있다. 실제의 언어사용에서 인식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의 언어체계 내에는 이러한 불확정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불확정성은 앞의 예문분석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이른바 완전성의 개념에도 연결되어 진다. 문장의 완전성은 고정적 틀 즉 구체적 모델설정의 방법론과 구체적 예시분석으로 명확히 제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 모델설정에서는 모델로 제시된 유형이 완전성을 나타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확정성 역시 자체에 갖추고 있어야 한다. 더욱이 모델설정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제시되게 되는 부분분석에 있어서는 각 부분 역시 그 자신이 지니고 있는 기능과 특성이 확정성과 완전성을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문장을 이루고 있는 각 부분이 그들이 나타내는 의미에 있어서도 더불어 기능하는 구조에 있어서도 또한 문장을 표현하는 사용자에게 있어서도 완전성과 확정성을 스스로 지니고 있다는 이론적 가설은 필자의 견해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러한 이론적 전제와 경험론적 분석의 결과 사이에 나타나는 어긋남은 구조주의 언어학이래 언어체계에 대한 연구를 분석적 관점에 주로 치중해 온 필연적 산물이라고 생각된다. 더욱이 실증주의적 방법론이 지배해 온 서구 언어학의 경험적 분석의 우위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나온 모순의 한 예라고 또한 생각된다. 여기에는 언어는 변화하는 생명체라는 극히 상식적인 선형적 명제를 방법상 잠시 제외하고 단지 정태적 관점에서 구체적 유형의 모델설정과 분석에 주로 의존해 온 현대언어학이 지닌 부정적 측면의 한 예라고 지적하고 싶다. 사실 체계언어학에서는 불확정성을 방법상 이론적

전제로 삼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불확정성은 잠정성과 같은 통시적 성격이 짙은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살펴본 바와 같이 언어체계 내에도 불확정성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언어는 그 표현기호 Zeichen 자체가 의미론의 관점에서는 구체성과 더불어 추상성이라는 양면성을, 구조유형에 있어서는 변형가능성을, 그리고 동시에 의사전달의 기능이라는 관점에서는 예측확실성과 예측불확실성이라는 양면성을, 즉 불확정성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어체계 자체에 불확정성이 내재되어 있지 않다면 시간의 흐름, 여건의 변화에 따른 언어체계의 반응과 변화는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태적 관점 즉 언어체계의 관점에서는, 완전성은 불확정성 Vagheit과 확정성 양면을 포괄한 상태로 파악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통시적 관점에서는, 완전성은 '비교적 또는 상대적으로 안정화된 잠정적 표상 (relativ stabilisierte und festgelegte Vorläufigkeit; vorläufige Vorstellung)'으로 파악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체계에는 불확정성 변화에는 잠정성이라는 두 가지 시각을 이론적 방법론에 병용하여 적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싶다.

5. 맺음말

체계언어학에서 다루어지는 완전성은 문장에 대한 완전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완전성은 문장 자체뿐만 아니라 문장을 이루는 각 하위구성 요소의 완전성 역시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는 완전성에 대한 고정적이고 확정적인 표상과 더불어 그에 따른 문장에 대한 확정적인 표상도 필연적으로 전제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완전성에 대한 표상은 가상적인 것이며 실제적으로는 완전성에 가까운 잠정적 확정성 다시 말해서 근접성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따라서 언어체계 내에서는 이러한 근접성은 불확정성을 수반하게 되며, 이러한 불확정성은 언어 공동체와 언어사용자 개인에게 불확정적인 표상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실제 표현에 있어 언어사용자 개인과 언어공동체 사이에 상이성이 나타나게 되며 이러한 상이성은 작용과 반작용의 관계로 이어지게 되어 문장과 완전성에 대한

표상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화시키게 되며 중국에는 언어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덧붙여 본 논문에서는 언어 자체에 대한 시각과 분석의 관점에서만 논의하려고 시도한 것이며 언어외적 요소에 대한 고려는 가능한 한 배제하려고 하였다.

참 고 문 헌

- Betten, Anne (Hg.) (1990): Neuere Forschungen zur historischen Syntax des Deutschen. Tübingen.
- Busse, Dietrich(1991): Konventionalisierungsstufen des Zeichengebrauchs als Ausgangspunkt semantischen Wandels. In: Diachrone Semantik und Pragmatik. Untersuchungen zur Erklärung und Beschreibung des Sprachwandels. Hg. von D. Busse. Tübingen, S. 37-65.
- Bühler, Karl(1978): Sprachtheorie. Die Darstellungsfunktion der Sprache. Stuttgart. (1. Aufl. 1934).
- Cherubim, Dieter(1979): Zum Problem des Sprachwandels. In: Zeitschrift für Dialektologie und Linguistik 46, S. 320-337.
- Engel, Ulrich(1988): Deutsche Grammatik. 2. Aufl. Heidelberg.
- Eroms, Hans Werner(1981): Valenzkasus und Präpositionen. Untersuchungen zur Syntax und Semantik präpositionaler Konstruktionen in der deutschen Gegenwartssprache. Heidelberg.
- Eroms, Hans-Werner(1990): Zur Entwicklung der Passivperiphrasen im Deutschen. In: Neuere Forschungen zur historischen Syntax des Deutschen Hg. von Anne Betten, S 82-97.
- Glinz, Hans(1970): Deutsche Syntax. 3. Aufl. Stuttgart.
- Köller, Wilhelm(1988): Philosophie der Grammatik. Vom Sinn grammatischen Wissens. Stuttgart.
- Lyons, John(1980/1983): Semantik. 2 Bde. München.
- Müller, Beat Louis(1985): Der Satz. Definition und sprachtheoretischer Status. Tübingen.

- Schneider, Edgar W.(1988): Variabilität, Polisemie und Unschärfe der Wortbedeutung. Bd. 1. Tübingen.
- Strohner, Hans/Rickheit, Gert(1985): Funktionale Vollständigkeit sprachlicher Äußerungen: Probleme, Experimente und Perspektiven. In: Ellipsen und fragmentarische Ausdrücke. Hg. von M-H. Reinhard/H. Rieser. S. 250-268.
- Wolf, Dieter(1984): Prinzipien und Methoden historischer Lexikologie. In: Sprachgeschichte. Ein Handbuch zur Geschichte der deutschen Sprache und ihrer Erforschung. Hg. von W. Besch/O. Reichmann/S. Sondereger. Erster Handbuch, S. 546-557.
- Wolf, Dieter(1991): Zur Vagheit in der Entwicklung der Sprachzeichen-
deutung. In: Diachrone Semantik und Pragmatik. Hg. von D. Busse. Tübingen, S. 101-115.
- Zifonun, Gisela/Hoffmann, Ludger/Strecker, Bruno(1997): Grammatik der deutschen Sprache. 3 Bde. Berlin, New York.

Zusammenfassung

Vollständigkeit und Vagheit

Jun-Ku Cho(Sungkyunkwan Univ.)

Aus systematischer Perspektiver gesehen, machen sich die Mitglieder einer Sprachgemeinschaft einerseits keine feste Vorstellungen von der strukturellen oder semantischen Vollständigkeit ihrer Muttersprache, sondern haben allenfalls eine vage Vorstellung davon. Andererseits sind - aus diachronischer Perspektive gesehen - Vorstellungen von 'Vollständigkeit' ohnehin mobil und flexibel, da ein Sprachsystem grundsätzlichen nur ein vorläufiges und relativ stabiles System ist. Aus dem Grund scheint es nicht überzeugend zu sein, die (semantische und

strukturelle) Vollständigkeit lediglich aufgrund einer einzigen systematischen Theorie wie zum Beispiel der Valenztheorie oder der transformationellen Grammatik (z. B. mit Hilfe von konkreten und bestimmten Typologisierungen von sogenannten vollstaendigen Saetzen) analysieren zu wollen. Im Prozess der Sprachveraenderung ist 'Vollstaendigkeit' nicht als feste und bestimmte Vorstellung, sondern nur als vage und vorläufige zu verstehen. Die Instabilität des Sprachsystems und die ständigen Veränderungen innerhalb dieses Systems lassen die Vorstellung von 'Vollständigkeit' kaum zu.